

## 당연하다고 믿어온 지식에 도전하다



송우정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만성기침이 증상이 아닌 독립적인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합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자가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 보통은 감기나 천식 같은 원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도 기침이 멈추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 송우정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기침의 원인에 의문을 품었다. ‘정말 기침은 다른 질환의 증상일 뿐일까’. 그리고 우연히 한 논문에서 ‘기침과민증후군’이라는 낯선 단어를 발견했다.

“내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만성기침은 천식, 비염, 역류성 식도염같은 원인질환으로 설명되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논문을 읽으며 ‘그동안 알고 있던 게 전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존에 당연하다고 믿어온 지식에 도전하는 데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송우정 교수는 바로 논문의 저자인 모리스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영국의 만성기침 권위자인 모리스 교수는 이름도 모르는 한국의 젊은 의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아낌없이 전해주었다. 그의 영향으로 송우정 교수는 영국 연수를 거치며 만성기침 연구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시각을 배웠다.

### 만성기침이 독립 질환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미 학계는 만성기침을 독립적인 질환으로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단순히 다른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라 신경 회로의 변화로 기침 반사가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독립적인 질환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고, 유럽호흡기학회는 기존의 천식·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중심 체계에 만성기침을 별도의 기도 질환 분야로 다루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만성기침이 질환일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

“몇 년 전 아침방송에 ‘기침’을 주제로 출연해서 만성기침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그 직후 각지에서 환자들이 찾아오더군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며 외면받았는데, 방송을 보니까 내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반가웠다’라면서요. 만성기침이 사회적으로 그림자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송우정 교수는 “만성기침은 아직 질병분류코드조차 없어



송우정 교수가 만성 기침 환자에게 유발후두내시경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7월 유럽호흡기학회 기침 컨퍼런스에서 기초강연 John Widdicombe Lecture 중인 송우정 교수.

서 진단서를 쓸 때 ‘천식의증’ 같은 병명으로 써야 한다”며 “의학적 연구가 발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합의를 위한 노력

송우정 교수는 작년 말 유럽호흡기학회 산하 TF인 만성기침 국제전문가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만성기침의 질병 명칭과 진단 기준을 정립하는데 힘쓰고 있다. 궁극적으로 WHO의 질병분류코드에 만성기침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또 말초신경에 집중한 1세대의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중추신경을 포함시킨 신경해부학적 진단 프로토콜 논문을 준비 중이다. 과거 만성통증이 원인 미상의 통증에서 하나의 독립된 질병으로 인정받았듯, 만성기침 역시 독자적인 질병으로 인정받도록 과학적 근거를 쌓는 동시에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유발후두내시경검사를 도입해 후두 기능이상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동안 천식으로 오인되던 만성기침, 호흡곤란 환자들에게 맞춤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한 이 검사는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아 현재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 환자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송우정 교수는 낯선 이메일에 친절히 답장을 보내고, 자신의 연구를 기꺼이 공유해 준 멘토들에 대한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누구보다 먼저 연구실에 나와 직접 논문을 쓰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한결같은 멘토들의 모습에서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배운다.

“아이작 뉴턴의 말처럼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 지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문과 목표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중요하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직접 챙기는 스승들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의 후배들도 혼자 고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멘토를 찾아 세상의 눈높이를 넓혀갔으면 합니다. 알레르기내과뿐만 아니라 호흡기내과, 신경과, 생리학 등 여러 분야가 협력해야 하는 이 열린 영역으로 더 많은 후학이 발을 디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송우정 교수는 “자신 역시 후학들에게 연구의 길을 넓혀주는 선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인다. 오랫동안 증상으로만 여겨졌던 만성기침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려는 송우정 교수의 도전이 환자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는 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글 편집부